



로켓랩 (RKLB.US)

사상 최대 실적과 이리듬 인수, 구체화된 흑자 전환 로드맵

- 2Q 호실적 및 우주군 대형 수주로 입증된 압도적 외형 성장과 백로그
- 이리듬 인수를 통한 '발사·위성·서비스' 수직계열화 및 반복수익 내재화
- 뉴트론 일정과 흑자 전환 시간표 확인하며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분할 매수

FY26Q2 실적: 가이드스 및 컨센서스 전반 상회

로켓랩(RKLB)의 2Q26 매출액은 \$234.1M(+62.0% YoY, +16.8% QoQ)으로 사상 최대치를 재경신하며 컨센서스(\$232.1M)를 상회했다. Non-GAAP 매출총이익률(GPM) 41.5%와 Adj. EBITDA -\$8.8M 역시 컨센서스(각각 39.4%, -\$22.1M)를 대폭 웃돌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기말 수주잔고는 \$2.36B(+137% YoY)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분기 마감 이후에도 \$800M+ 규모의 신규 계약이 추가되며 견조한 가시성을 확보했다. 다만 조정 EPS(-\$0.08)는 Mynaric 인수 관련 무형자산 상각 및 법인세 비용 반영으로 컨센서스(-\$0.07)를 소폭 하회했다. 3Q26 가이드스로는 매출액 \$250~265M, GAAP GPM 29~31%를 제시하여 기록 경신을 예고했다.

전사 외형 성장은 미 우주개발국(SDA) 프로그램 양산 본격화에 따른 Space Systems 부문(+94% YoY)이 견인했다. 한편 Launch 부문의 매출 감소(-30.0% QoQ)는 발사 실패나 케이던스 둔화가 아닌, HASTE 미션의 진행기준(Over-time) 선인식에 따른 회계적 믹스 변화에 기인한다.

주가 흐름 및 뉴스 플로우

지난 분기 RKLB의 주가는 1Q26 어닝 서프라이즈와 방산 수주 모멘텀에 힘입어 5/27 사상 최고가인 \$150.23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분기 중 \$1.08B 규모의 ATM 증자 신주 발행과 6월 초대형 스페이스X(SPCX) 상장에 따른 섹터 수급 이탈로 7월 말 \$58.60(고점 대비 -61%)까지 급락했다. 6월 말 이리듬(IRDM) 인수 발표도 단기 수급 조정을 완전히 되돌리진 못했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동력은 美 우주군 중심의 대형 수주였다. 준궤도 발사 체계(GHOST 공개, \$266M) 및 Flatellite-Neutron 결합 SB-AMTI 턴키(\$397M) 등 열흘간 \$663M의 계약을 확보하며 실적 직전 8거래일간 +41.3% 반등했다. 8월 10일 발표된 2Q26 실적은 가이드스 상단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나, Neutron의 연내 발사 윈도우 축소 우려가 맞물리며 주가 반응은 중립에 그쳤다. 현재 주가(\$82.08)는 5월 고점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주가 조정과 실적 개선이 겹쳐 밸류에이션 부담은 대폭 완화됐다.

▶ 현재주가 / 목표주가 컨센서스

현재주가('26.8.17): \$82.08

목표주가 컨센서스: \$115.06

▶ 투자 의견 컨센서스

매수	보유
83%	17%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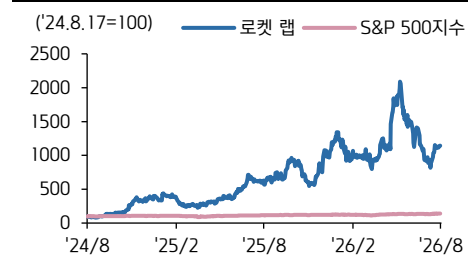
산업분류	우주항공 & 국방
S&P 500 (08/17)	7,745.06
현재주가/목표주가	82.08 / 115.06
52주 최고/최저 (\$)	151.00 / 37.57
시가총액 (백만\$)	52,474
유통주식 수 (백만)	598
일평균거래량 (3M)	24,721,490

Earnings & Valuation

(백만 \$)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436	602	939	1,357
EBITDA	-97	-101	-51	104
EBITDA 마진(%)	-22.2	-16.8	-5.5	7.7
순이익	-190	-198	-167	-45
EPS	-0.38	-0.37	-0.27	-0.08
증가율(%)	0.0	-2.6	-28.1	-71.4
PER(배)	-	-	-	-
PBR(배)	33.6	22.0	19.8	19.8
ROE(%)	-40.6	-18.8	-8.5	-1.7
배당수익률(%)	-	-	-	-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17.7	21.4	17.4	85.4
S&P Index	13.1	3.9	13.2	2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IRDM 인수: 발사-위성-데이터 서비스를 아우르는 '우주 빅테크'로 도약

RKLB는 지난 6월 29일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 이리듐(Iridium Communications, IRDM) 인수를 전격 발표했다. 기업가치(EV) 약 \$8.0B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M&A로, 인수 대가는 주당 약 \$54(현금 \$27 + 교환비 칼라 \$67.50~\$112.50가 적용된 RKLB 주식)의 현금 및 주식 혼합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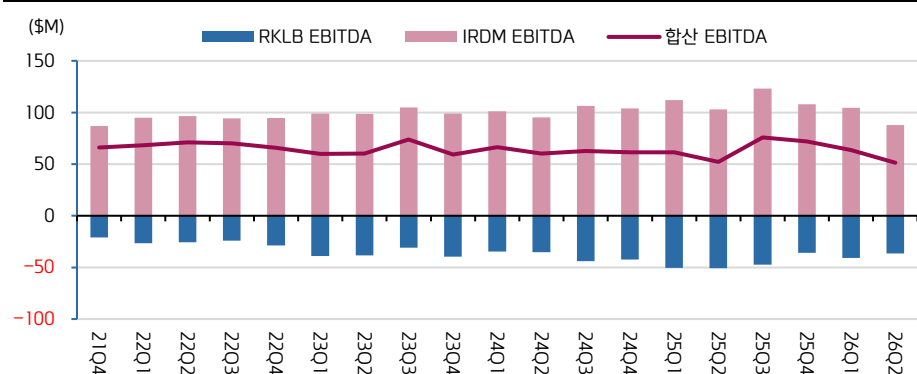
양사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본 거래를 승인했으며, IRDM 주총 및 규제 당국 심사를 거쳐 2027년 중순 딜 클로징을 목표로 한다. 소요 자원은 2분기 중 ATM 증자로 선제 확보한 \$1.08B의 현금과 Deutsche Bank 및 Wells Fargo가 주선하는 \$3.6B 규모의 브릿지론을 통해 조달된다.

당사는 이번 인수를 통해 RKLB가 '종합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단숨에 가속화했다고 평가한다. 발사(Launch)와 위성 제조(Space Systems)라는 업스트림(Upstream)에 고수익 데이터 서비스인 다운스트림(Downstream)을 결합함으로써, SpaceX에 이어 '제조(Build)-발사(Launch)-운용(Operate)'의 전 과정을 수직 통합한 세계 두 번째 사업자로 등극하게 된다.

인수 대상인 IRDM의 본질은 '검증된 현금 창출 자산'이다. 2035년까지 운용 가능한 66기의 저궤도(LEO) 위성망과 국제 조정이 완료된 희소 L-band 주파수, 2.55M+ 가입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연간 매출 \$871.7M, OEBITDA \$495.0M(마진 57%)을 기록했다. 당사가 1Q26 리뷰에서 현 밸류에이션의 주된 리스크로 '고마진 구독형 반복 수익의 부재와 일회성 수주 의존도'를 지적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M&A는 회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면으로 보완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딜 멀티플(EV \$8.0B)은 2025년 실적 기준 약 9.2배의 EV/Sales 및 약 16.2배의 EV/OEBITDA로, 5월 기준 IRDM 시가총액(\$4.6B) 대비 상당한 프리미엄이 반영됐다. 다만 경영진이 언급했듯 L-band는 대용량 브로드밴드용이 아니므로 Starlink와의 직접적인 '우주 인터넷' 출혈 경쟁은 지양한다. 기상 악천후 및 실내 투과율이 우수하고 높은 락인(Lock-in) 효과를 지닌 보안·미션 크리티컬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동 자산의 핵심 가치다.

로켓랩 · 이리듐 합산 EBITDA 추이 (단순 합산 기준)



자료: LSE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시너지·회계조정 미반영 단순 합산. LSEG 표준화 EBITDA 기준. 회사 공시 조정 EBITDA(RKLB)·OEBITDA(IRDM)와 정의 상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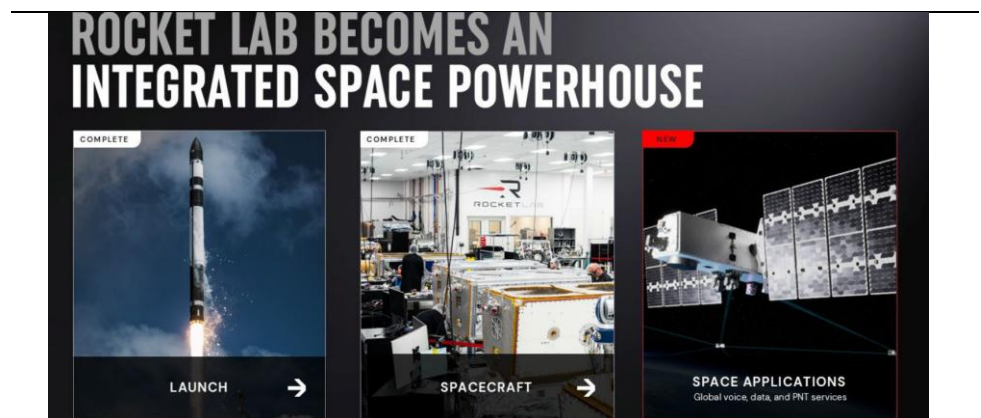
당사가 판단한 RKL.B와 IRDM 시너지의 축은 세 가지다.

- ① **[자체 발사(Self-launching)를 통한 원가 혁신]** 차세대 콘스텔레이션 갱신 시 위성 제조(Flatellite)와 발사(Neutron)를 완전 내재화하여 서드파티 의존 비용과 납기 리스크를 대폭 절감하고, 안정적인 캡티브(Captive) 발사 수요를 확보한다.
- ② **[동일 주파수의 활용 극대화]** IoT, D2D(Direct-to-Device), 차세대 PNT(대체 GPS), 방산 보안 통신 등 기존 IRDM의 성장 로드맵을 가속화하며, 특히 PNT의 경우 기존 위성망의 소폭 개조만으로도 단기간 내 수익화가 가능하다.
- ③ **[정부 및 국방 시장에서의 크레딧(Credit) 획득]** 생명·국가 안보 직결 서비스를 직접 운용해 본 트랙레코드는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선 최고 수준의 신뢰를 형성하며, 사측은 Iridium을 시작점으로 향후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 볼트온(Bolt-on) M&A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2027년 중순 인수가 완료되면 그룹의 재무 체질은 완전히 탈바꿈한다. IRDM이 창출하는 연간 \$495.0M 수준의 OEbitDA는 Neutron 상업화 이전에도 전사 수익성의 견고한 하방 지지대가 되어주며, 막대한 FCF 유입을 통해 New Space 기업 특유의 유동성 소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물론 1년간의 규제 심사 및 주총 승인 절차, 주가 변동에 연동된 칼라 밴드(\$67.50~\$112.50) 관리, \$3.6B 브릿지론의 장기 차환(Refinancing), 성숙기 자산의 톱라인 성장 재가속 등은 향후 면밀히 추적해야 할 체크포인트다. 그러나 이번 딜은 RKL.B의 가치평가 프레임을 '단순 성장률 기반의 PSR'에서 '검증된 현금 창출력(EBITDA·FCF)이 뒷받침되는 블렌디드(Blended) 멀티플'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로켓랩은 이리듐 인수를 통해 스페이스 X와 같은 종합 우주 기업으로 도약



자료: 로켓랩, 키움증권 리서치

중형 발사체 뉴트론(Neutron) 개발 현황

1Q26 실적 리뷰에서 당사가 단기 주가 모멘텀의 핵심 모니터링 변수로 지목했던 'Neutron 개발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측은 1단 탱크 생산이 '4Q26 패드 인도' 가이드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어닝콜을 통해 "연내 발사 윈도우는 좁아지고 있다(the window for an end-year launch is narrowing)"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피터 벅 CEO는 이를 단순 개발 지연이 아닌 '전략적 리스크 트레이드오프'로 설명했다. 1호기 발사를 무리하게 서두르다 비행 후 재인증을 겪기보다, 10호기까지의 신속한 양산 확장(Cadence)과 재사용성(Reusability)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인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최대 관문으로는 추진제를 만충한 상태로 발사대에서 수행하는 스테이지 연소 시험(Stage Testing)을 꼽았다. 실적 발표 직후 외신이 '2027년 지연 가능성'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익일 주가가 -4.7% 갭 하락(당일 전량 회복)한 점은 시장의 높은 민감도를 방증한다.

핵심 하드웨어의 개발 진척은 순조롭다.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엔진은 1·2단 합산 400회 이상의 핫파이어를 완료했으며, 시험의 초점이 기본 출력 검증에서 다중 재시동 및 마진 초과 연소 등 '재사용 내구성' 검증으로 전환됐다. 첫 비행용 엔진 세트는 이미 양산에 돌입해 수락 시험 후 발사장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1단 기체 역시 자동 섬유 배치(AFP) 공법으로 제작된 탱크 돔과 배럴의 조립이 진행 중이며, 인터스테이지는 하중 시험을 마쳤다.

2단 기체와 추력 모듈(Thrust Module)은 버지니아 LC-3 발사대로 이송되어 발사대 인터페이스 및 유체·항전 통합 시험을 선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립 후 일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헝그리 히포(Hungry Hippo)' 페어링은 열보호계(TPS) 및 제어면 통합을 거쳐 비행 전 최종 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1단 해상 회수 바지선(ROI호)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

상업화·사업 가시성은 전분기 대비 대폭 강화됐다. 1Q 콜에서 5회였던 Neutron 수주는 케플러(Kepler Communications)와의 첫 전용 발사를 포함해 상업 8회로 늘어났으며, 미 우주군 SB-AMTI 턴키 계약(\$397M) 전용 발사 등이 추가됐다. 미 국방부의 NSSL Lane 1 계약 상한이 \$5.6B에서 \$17B로 3배 증액된 점도 강력한 중기 정부 수요 기반이다. 특히 회사는 글로벌 발사 쇼티지 속에서 사전 할인 없이 \$50M~\$55M의 ASP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시험 비행 전 풀프라이스 수주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며 향후 ASP 상방 압력을 시사했다.

아울러 당사가 강조해 온 'EBITDA 흑자 전환과 Neutron의 직결성'은 사측의 공식 프레임으로 구체화됐다. 사측은 1차 시험발사 성공 다음 분기 Adj. EBITDA 흑자 전환, 이후 18~24개월 내 FCF 흑자 전환이라는 명확한 재무 로드맵을 제시했다. 결국 현시점의 핵심 관전점은 '4Q26 패드 인도 → 스테이지 테스트 → 초도 비행'으로 이어지는 마일스톤의 소화 속도이며, 당사는 연내 '패드 인도(LC-3 롤아웃)'와 연내 '발사'를 분리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상업·방산·자체 수요(Iridium)로 조기 완판 중인 Neutron 발사 슬롯



자료: 로켓랩, 키움증권 리서치

미 우주군 Prime Contractor 지위 공고화

2Q26 및 분기 마감 직후는 RKLB가 미 우주군(Space Force)의 핵심 조달 파이프라인 전면에서 안착했음을 입증한 기간이었다. 7월 27일 \$266M 규모의 준궤도(Suborbital) 발사 계약과 8월 4일 \$397M 규모의 SB-AMTI 위성 계약이 열흘 간격으로 발표되며 우주군 계약만 단숨에 \$663M이 누적됐다. 5월 21일 GEO 위성 계약을 포함해 분기 중·후반 신규 계약은 Space Systems \$581M+, Launch Services \$437M+에 달한다(옵션 포함). 4Q25에 제시했던 '미 정부 핵심 Prime Contractor로의 진화' 논지가 위성 제조와 발사 인프라 양면에서 구체적 실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위성 제조 축의 핵심은 SB-AMTI 탄기 수주와 정지궤도(GEO) 시장 진입이다. SB-AMTI(공중 이동표적 지시기)는 공중 위협을 우주에서 전 지구적으로 탐지·추적하는 미 국방부(DoD)의 최우선 국가안보 사업이다. RKLB는 대량 양산형 저프로파일 위성인 Flatellite 다수 제작과 차세대 Neutron 발사를 일괄 공급하는 \$397M 계약을 확보했다. 위성과 발사를 탄기로 동시 공급할 수 있는 벤더가 단 2개사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Beck CEO가 "향후 로켓랩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사업 대부분이 Flatellite 기반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점은 이 플랫폼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준다.

아울러 미 우주시스템사령부(SSC) 등과 총 2건, \$160M+ 규모의 정지궤도 위성 3기(우주영역인식 위성 2기 포함) 계약을 체결하며 정부 GEO 시장에 최초 진출했다. 이 위성에는 과거 GEOST 인수를 통해 확보한 Heimdall 광학 페이로드가 탑재되어 M&A를 통한 수직계열화가 수주 확대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입증했다.

2Q 중 수행된 'VICTUS HAZE' 미션은 독보적인 작전 실행력을 각인시켰다. 단일 프라임 계약자가 발사체, 위성체, 궤도 운영을 모두 수행한 최초의 기술적 신속 반응 우주(TacRS) 미션에서, 회사는 발사 통보 후 16시간 42분 만에 궤도 진입(요구 24시간), 38시간 만에 궤도 내 커미셔닝(요구 72시간), 59시간 미만 내 비협조 위성 추적·촬영(요구 84시간)이라는 3대 신기록을 세우며 미 국방부의 신뢰를 굳혔다.

발사 인프라 측면에서는 준궤도 방산 수요가 구조화되고 있다. \$266M 계약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사 계약으로, 미사일 방어 시험용 최대 18회 발사를 레거시 방산 대기업들과의 경쟁 끝에 따냈다. 이는 1Q의 MACH-TB 2.0(\$190M, 20회)에 이어 5개월 만에 따낸 두 번째 대형 다년 계약이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바로 컨테이너형 이동식 발사 시스템인 'GHOST'와 알래스카 코디악의 신규 발사장 'LC-4'다.

로켓과 지상지원체계, 관제시스템을 컨테이너 단위로 패키징해 전개하는 GHOST는 고객 요구에서 출발한 시스템으로, LC-4의 2개 패드에 우선 배치되어 2027년 준궤도 발사로 데뷔하며 태평양 미사일 시험 접근성을 크게 넓힐 예정이다. 이로써 전 세계 3개 발사장, 6개 패드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동맹국 대상 '우주 주권 발사 수출(Sovereign Launch Export)'이라는 새로운 사업 기회도 열렸다.

CFO는 골든 돔(Golden Dome) 등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확산될수록 HASTE 수요는 여전히 "초기 국면"에 불과하며, 향후 HASTE ASP 역시 구조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Anduril 등 민간 방산 수요도 확대 추세). 한편 \$266M 총액을 18회로 단순 환산한 약 \$15M을 HASTE 1회 단가로 해석해선 안 된다. 동 계약에는 발사 인프라 구축 편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진 프로파일 자체는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종합하면 이번 분기 방산 수주는 개별 계약의 단순 합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위성을 제작하고(Flatellite·GEO), 쏘아 올리며(Electron·HASTE·Neutron), 필요한 곳에 발사장까지 신속 전개하는(GHOST) 완벽한 End-to-End 조달 채널로 진화했다. 특히 머천트 부품 사업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마진 스택킹(Margin Stacking)'을 제거함으로써 대형 정부 프로그램에서 독보적인 원가 및 일정 경쟁력을 발휘하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본격 작동하고 있다.

대형 수주 대부분이 2분기 종료 직후 체결된 만큼 3Q 백로그에 순차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방산 축의 급성장은 미 국방 예산 사이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정부 계약 편중 리스크는 향후에도 지속 점검해야 할 변수다. (2Q말 기준 수주잔고 내 상업 비중이 57%로 분산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여전히 높은 멀티플, 그러나 흑전 기대는 '구체적 시간표'를 얻었다

주가가 5월 고점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조정 받았으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현 주가 기준 FY26E P/S는 약 50배(NTM 기준 40배)에 달한다. 다만 비교의 기준점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1Q26 리뷰 시점의 77배는 SpaceX 상장 이벤트를 앞두고 New Space 섹터 전반이 과열되었던 국면의 산물로, 정상적인 적정 가치의 앵커로 삼기 어렵다. 이후 실적 추정치 상향(FY26E·27E 매출 각각 +7%)이 병행된 점을 감안하면, 현 구간은 '조정으로 싸진' 상태라기보다 '단기 과열이 걷히며 정상 궤도에 진입한' 상태에 가깝다.

RKLB처럼 본격적인 이익 창출 전 단계에 있는 고성장 기업의 적정 가치를 단일 재무지표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 종목의 주가는 본질적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의 강도'를 따라 움직여 왔다.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감이 이번 2Q26 실적을 통해 '구체적인 시간표'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컨센서스는 이미 EBITDA 기준 FY27E 흑자 전환(EPS 및 FCF는 FY28E)을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NTM EBITDA 컨센서스는 이미 +\$58M로 양수에 진입했다. 이는 "첫 발사 성공 다음 분기 EBITDA 흑전"이라는 사측의 공식 프레임과 완벽히 정합한다.

결국 향후 주가 방향성은 두 가지 핵심 이벤트의 실행력이 결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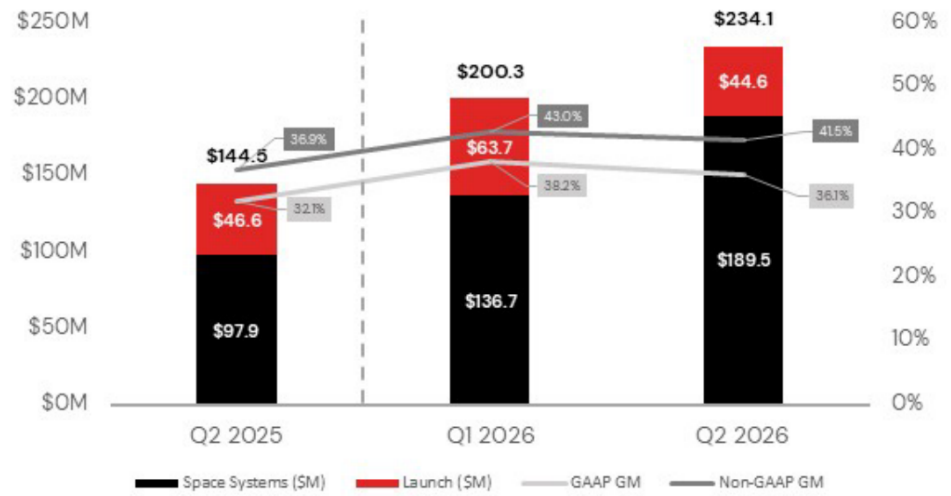
- **Neutron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 4Q26 패드 인도 → 발사대 스테이지 연소 시험 → 초도 비행
- **IRDM 인수의 완주:** S-4 증권신고서 제출 → 주총 승인 → 규제 심사 통과 (mid-2027 클로징)

특히 후자는 딜 클로징 즉시 그룹 합산 FCF를 흑자(FY27E +\$326M)로 돌려세우는 흑전 스토리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우주 기업에 있어 EBITDA 흑자 전환이 지니는 리레이팅 폭발력은 과거 플래닛 랩스(Planet Labs, PL)의 사례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PL은 흑전 구간을 통과하며 시장의 평가 프레임이 '현금 소진 리스크'에서 '이익 성장성'으로 전환되었고, 주가는 강력한 재평가를 경험했다. 물론 로켓랩은 현시점에도 PSR 50배라는 높은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어 멀티플 배수의 추가적인 급격한 확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약속된 흑전 시간표가 차질 없이 지켜진다면, 외형 성장에 힘입어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상방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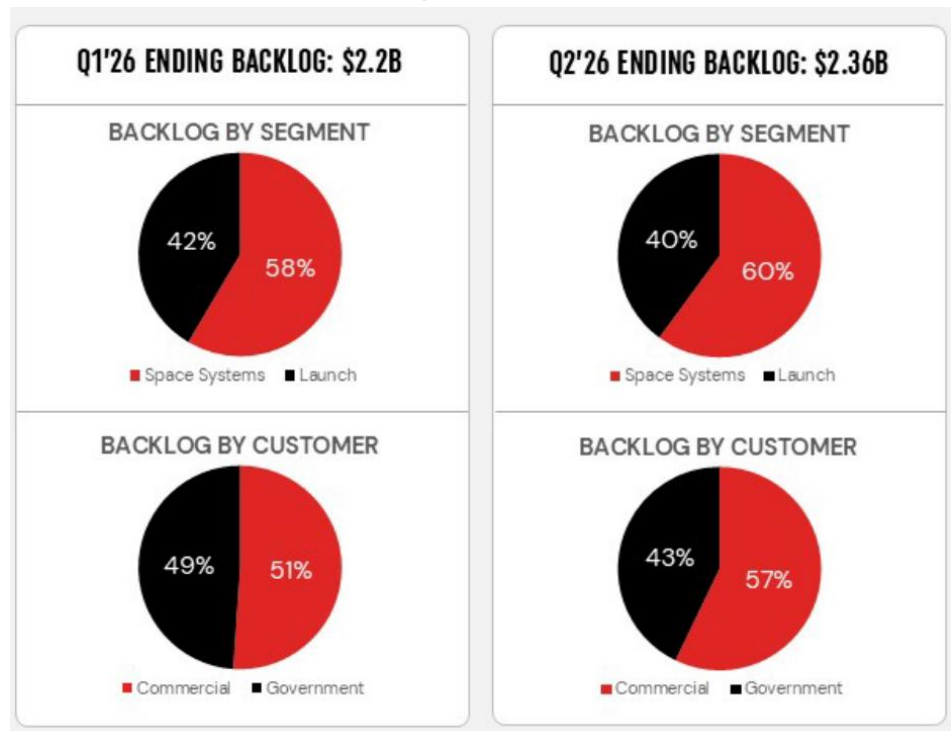
따라서 당사는 **Neutron 기체의 발사대(LC-3) 인도 시점과 IRDM 인수 절차의 공식 마일스톤**을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권고한다. 핵심 이정표가 달성될 때마다 비중을 적극 확대하고, 일정 지연이 가시화될 경우 매수 속도를 조절하는 유연한 대응이 유효한 구간이다.

로켓랩 분기별 매출액 및 GAAP / Non-GAAP 매출총이익률



자료: 로켓랩, 키움증권 리서치

로켓랩 1Q26 및 2Q26 수주잔고(Backlog) 비교



자료: 로켓랩, 키움증권 리서치

로켓랩 FY26 2Q ('26.04.01~ 06.30)

구분	FY26 2Q	컨센서스 비교		YoY 비교		QoQ 비교	
(백만 \$)	발표치	컨센서스	차이	FY25 2Q	성장률	FY26 1Q	성장률
매출액	234	232	0.8%	144	62.0%	200	16.8%
EBITDA	-9	-22	-60.0%	-28	적자축소	-12	적자축소
EBITDA 마진(%)	-3.8%	-9.5%	5.7%p	-19.1%	15.3%p	-5.9%	2.1%p
순이익	-49	-57	12.8%	-66	적자축소	-45	적자확대
EPS (USD)	-0.08	-0.07	15.9%	-0.13	적자축소	-0.07	적자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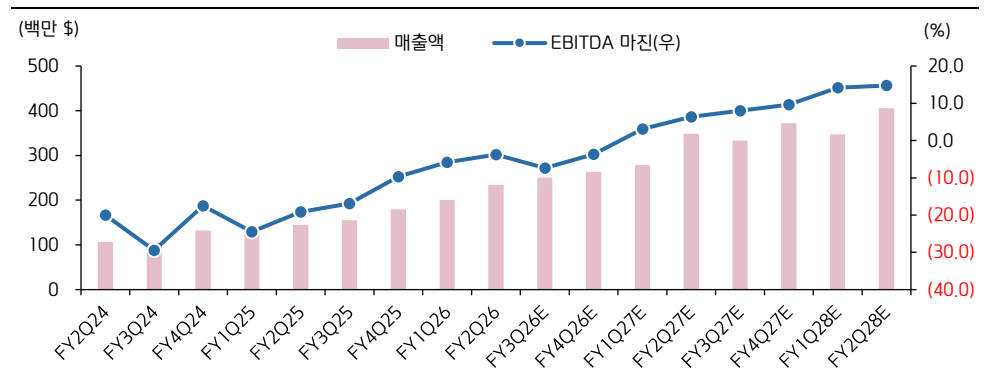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로켓랩 향후 실적 컨센서스 표

구분	분기 컨센서스				연간 컨센서스			
(백만 \$)	FY26Q3	YoY 성장률	FY26Q4	YoY 성장률	FY26	YoY 성장률	FY27	YoY 성장률
매출액	250	61.4%	263	46.5%	939	56.1%	1,357	44.5%
EBITDA	-18	적자축소	-10	적자축소	-51	적자축소	104	흑자전환
EBITDA 마진(%)	-7.3%	9.6%p	-3.7%	6.0%p	-5.5%	11.4%p	7.7%	13.1%p
순이익	-40	적자확대	-37	적자축소	-167	적자축소	-45	적자축소
EPS (USD)	-0.06	적자확대	-0.05	적자축소	-0.27	적자축소	-0.08	적자축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로켓랩 분기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8-17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로켓랩 상세실적표

(천 달러)	FY25Q2	FY26Q1	FY26Q2	YoY(%)	QoQ(%)
[GAAP]					
매출액	144,498	200,348	234,066	62.0	16.8
Space System	97,850	136,685	189,480	93.6	38.6
Launch Service	46,650	63,663	44,586	-4.4	-30.0
매출원가	98,110	123,855	149,490	52.4	20.7
Space System	65,680	88,415	124,014	88.8	40.3
Launch Service	32,430	35,440	25,476	-21.4	-28.1
매출총이익	46,388	76,493	84,576	82.3	10.6
영업비용	106,027	132,462	142,090	34.0	7.3
연구개발비	66,134	80,513	82,429	24.6	2.4
판매관리비	39,893	51,949	59,661	49.6	14.8
영업이익	-59,639	-55,969	-57,514	적지	적지
순이자비용	2,371	-8,875	-15,905		
외환손익	-489	156	-1,954		
기타 순이익	-977	124	-368		
세전이익	-63,476	-46,814	-43,931	적지	적지
법인세 비용(수익)	2,938	-1,792	5,327		
순이익	-66,414	-45,022	-49,258	적지	적지
EPS(달러/주)	-0.13	-0.07	-0.08	적지	적지
희석 가중평균주수(백만주)	515,087	605,435	629,682	22.2	4.0
주요 영업지표 [Non-GAAP]					
GPM(%)	36.9	43.0	41.5	4.6%p	-1.5%p
FCF(\$mn)	-55.3	-77.4	-110.1	적지	적지
EBITDA Adj. (\$mn)	-27.6	-11.8	-8.8	적지	적지

자료: 로켓랩, LSEG,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